

# 아날로그, 이유 있는 귀환!

서점, 캘리그래피, 6mm 캠코더, LP판, 필름카메라... '과거의 방식', '과거의 디자인', '느리고 낡은 제품과 콘텐츠'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실 새 없이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감에 지친 현대인들이 오히려 '적당한 불편함'을 선택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걸까. 편리함보다는 현존하는 것, 직접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만의 체험, 소유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음악, 카메라, 책 등의 영역에서 일고 있는 변화를 통해 아날로그 기기와 콘텐츠가 사랑받는 이유를 살펴봤다.

# MUSIC

## LP

장점 음반 보관 상태, 녹음 수준, 비늘의 마모 상태, 턴테이블의 회전 속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음질 구현. 소장가치, 음반을 다룰 때 온몸으로 느끼는 감성 등  
 단점 턴테이블이 있어야 재생 가능. 비싼 가격. 스크래치로 인한 음질 손상.  
 이슈 김광석, 유재하 등의 LP 재발매를 비롯해 이적, 아이유, 김동률, 브라운아이드소울 등이 LP 발매에 동참하고 있음. 미국을 시작으로 몇 년째 LP 판매량 증가(CD 판매량은 감소추세)



## 스트리밍 서비스, 디지털 음원

장점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 가능. 전 세계 다양한 장르의 수많은 곡을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음. CD, LP 구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  
 단점 스마트 기기에 내장된 작은 스피커로 듣는 음질의 한계  
 이슈 디지털 음악시장은 무선 인터넷의 보편화,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입지를 굳혀감. MP3 다운로드 방식뿐만 아니라 멜론, 벅스, 지니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음악 감상이 보편화됐음

### 트렌드

디지털 음반과 LP 한정판 발급 두 가지 방식으로 음원 출시. 즉 LP를 사면 디지털 음원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감성(디지털)'과 '소유(아날로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마케팅 하고 있음

# BOOK

## 종이 책, 큐레이터 책방

장점 손에 든 책의 두께, 행간의 넓이 및 포인트에 따라 달라지는 다채로움. 종이에서 느끼는 감수성. 종이의 질감  
 단점 무거움. 전자책에 비해 비싼 가격. 시간이 지나면 닳고 분실되는 등 관리의 어려움.  
 이슈 큐레이터 책방 등장. 독서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24시간 북 카페 등의 출현



## 북 리더기, 전자책 도서관

장점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됨. 언제 어디서나 수천 권의 책 구독 가능. 밑줄, 메모 등을 지원해 관리가 편함  
 단점 장기간 화면을 쳐다봤을 때의 피로감. 햇빛 아래에서는 잘 안 보임. 전력 소모 및 충전 필요  
 이슈 최근 세계 전자책 출판시장은 더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2016년 상반기 기준 세계 전자책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약 20% 감소)

### 트렌드

종이를 닮은 디지털 디스플레이, 북 리더기 개발 활발. 고도화된 전자잉크 기술로 종이책을 읽는 듯한 실재감 제공이 최근 전자책 시장의 흐름. 2015년 6월 출시된 킨들 페이퍼하이트3는 새로운 스크린 기술을 선보여 화제

# CAMERA

## 필름카메라

장점 직접 조리개를 설정하는 등 조작을 통해 찍는 즐거움  
 단점 정해진 필름 컷 수가 있어 촬영 제한



## 디지털카메라

장점 다양한 모드로 촬영 가능. 인화하지 않아도 이미지 파일을 볼 수 있음. 촬영 횟수에 제한 없음  
 단점 무제한 촬영이 가능해 긴장감이 없음. 충전 필요

### 트렌드

이노션이 2017년 9월 '아날로그 콘텐츠'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진(1만2416건)', '필름(5822건)', '카메라(4962건)' 등 아날로그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진에 아날로그 효과를 부여하는 필터(아날로그 파리, 아날로그 도쿄), 필름카메라 구현(구닥) 등과 같이 아날로그 감성을 덧입힌 앱이 대표적

# 추억을 소환하는 LP... 나만의 음악 찾는 신호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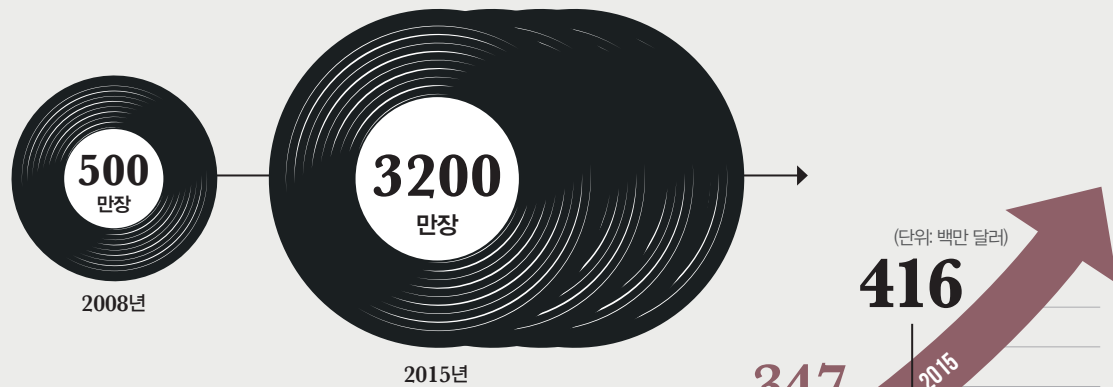
마니아층이 모이는 서울 레코드페어는 LP의 열풍으로 인해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가수 아이유가 얼마 전 한정판으로 출시한 LP는 내마자마 매진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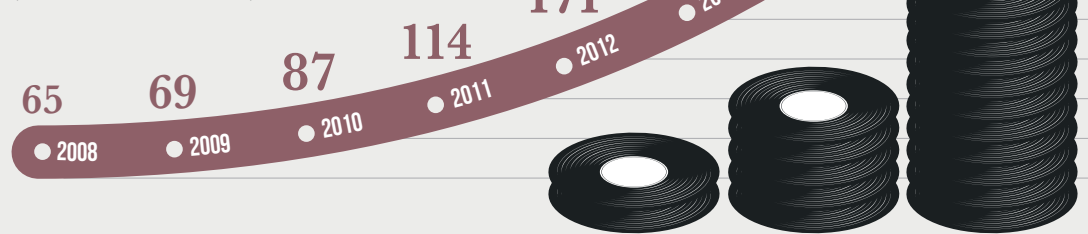
## 세계 LP 음반 판매량

(자료: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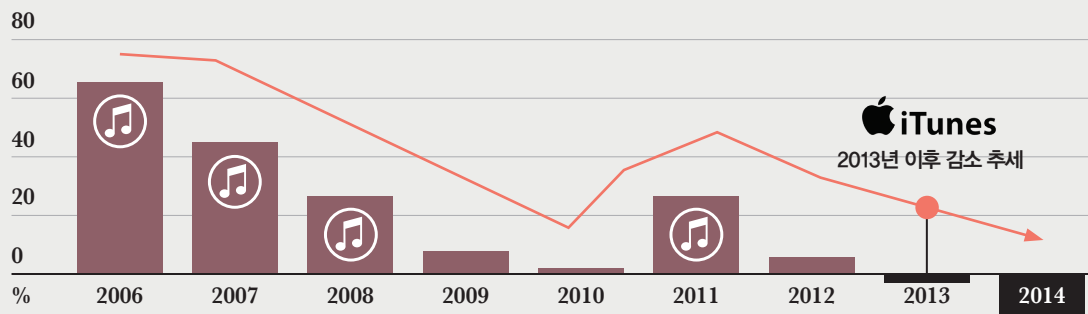


## 급증하는 세계 LP 판매액

(자료: 글로벌 통계포털 스태티스타)



## 아이튠즈 송 다운로드 성장 추이



# 그곳에 가면 '아날로그'가 있다 감성 명소 10선

할머니집에 놀러온 듯한 옛날소품 가득한 카페와 80년대 느낌의 중식당 등은 빠르게 변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 힐링 공간을 찾아 떠나는 온대리. 그가 자주 찾는 서울 아날로그 플레이스 10곳을 소개한다.

● 음악 ● 책 ● 전시장 외 공간

- 1 학림다방**  
6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학로의 터줏대감. 비엔나 커피가 유명
- 2 커피한잔**  
서촌 한적한 길목에 위치한 카페. 주인이 직접 옛날방식으로 추출하는 드립커피가 일품
- 3 서촌블루스**  
LP 감상이 가능한 와인&맥주 바. 경복궁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중
- 4 도시락파스타**  
존스라운 서체로 크게 쓰여진 '파스타' 간판이 눈길을 끄는 곳
- 5 레이어57**  
성수동에 위치한 빈티지 인더스트리얼 스튜디오. 사진촬영은 물론, 전시회, 각종 쇼도 가능
- 6 은인공방**  
캘리그래피와 관련 소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공방
- 7 카페 희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직접 가져온 소품들로 가득한 카페. 어릴적 할머니가 주셨던 고무마와 우유가 주력 메뉴
- 8 명성이발관**  
이발관이었던 외양과 소품을 유지한 채 운영하는 중식 술집
- 9 책방연희**  
카페와 연결된 독립서점으로 책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도시인문학 서점
- 10 복고포차 달동네**  
목동에 위치한 복고풍의 주점. 다양한 옛날 소품을 보는 재미가 쏠쏠